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다시 보기

질문1. 이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 보세요.

(1) 인상 깊었던 장면

- ☐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너무 슬프다.
- ☐ 포도 씨앗(?) 같은 것을 창문에 붙인 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다.

(2) 드라마를 보며 느낀 감정

- ☐ 안타깝다.
 - ☐ 좀 슬프다.
 - ☐ 슬프다
 - ☐ 너무 슬프다.
 - ☐ 감동적이었다.
 - ☐ 슬펐다. 감동적이었다.
 - ☐ 뭔가 되게 슬픈데, 또 뭔가 답답하다.
 - ☐ 남자 주인공이 불쌍하다.
- 슬픈 감정과 설레는 감정이 둘 다 들었던 거 같다.

(3) 드라마를 보며 든 생각

- ☐ 드라마를 보면서 가끔씩 재미있는 장면들이 나와서 지루하지 않게 봤고 알게 모르게 나도 드라마에 집중을 하면서 인물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던 것 같다.
- ☐ 뭔가 두 사람 마음이 이해가 가고 드라마인데 좀 울컥했다.
- ☐ 드라마 속 이야기가 생생하게 느껴졌다.
- ☐ 진짜 사랑이 만병통치약인 것 같다.
- ☐ 인물들이 연기를 잘해 몰입이 더 잘 된다.
- ☐ 너무 현실감이 있어서 그렇그렷했다
- ☐ 지금 드라마하고 조금 다른 것 같다.
- ☐ 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질문2. 이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은 매력은 무엇일까요?

(1) 두 사람의 순수한 사랑

- ☐ 예쁜 사랑을 해서
- ☐ 찐사랑
- ☐ 돈, 직업등의 직위를 보고 사귀는 것이 아닌 사랑만 하는 이야기여서
- ☐ 그저 순수하게 사랑을 하기 때문이다.
- ☐ 서로의 배경이 아니라 마음을 봐서
- ☐ 너무 서로가 힘든 걸 위로하고 사랑해서 보기 좋다
- ☐ 그냥 단순히 돈을 보고 사귀는 것이 아닌 서로의 아픔까지 이해하며 사랑을 해서 그런 것 같다.
- ☐ 순수하게 사랑을 이어나가는 것이 재미있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로 채워나가는 모습

이 아름다운 것 같다.

○ 서로의 아픈 점들을 이해하며 진실하게 사랑하는 게 매력적이였다

(2) 인물 설정과 스토리가 재미있다

○ 엄청 부유한 사람이나 엄청 가난한 사람이라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처럼 평민이니깐 더 몰입이 된 거 같다

○ 서로를 응원해 주면서 만나서 그거에 사람들이 감동받은 것 같다.

○ 빠져드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 사랑하는 사이의 이야기가 재밌기 때문이다.

○ 소소하게 꾸준히 사랑을 이어나가고 서로에게 실망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워 사랑을 받은 것 같다

(3) 재미있어서

○ 슬프고 공감 돼서

○ 진짜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져 있어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질문3.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재밌는 연애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선생님 조언)

친구들이 추천해주는 아래의 연애 이야기들을 여러분들도 감상해보세요.^^ 꿀잼 보장!!

웹드라마 '리얼 타임 러브'

수요일 웹툰 '연놈'

(줄거리: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을법한 고등학생들의 평범한 연애 이야기이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웹툰 '너의 결혼식'

(남녀 둘이 친구로 지내다가 서로 좋아하게 되어서 오래 사귀었는데 헤어졌다 그 후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는 데 남자는 아직까지 결혼하는 여자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해주었다.)

드라마 도깨비

웹툰 '바른 연애 길잡이'

(대학생의 연애 이야기이다.)

드라마 ‘위대한 유혹자’
(진짜 너무 좋아요. 우도환이랑 조이랑 썸 타고♥)

웹드라마 ‘일진에게 찍혔을 때’
(일진과 평범한 학생이 만나는 이야기인데 요즘 재밌게 잘 보고 있다.)

웹툰 ‘바른 연애 길잡이’
(항상 스케줄에 맞게 생화하던 여주가 남주를 만나 더 재밌게 스케줄에 얽매이지 않고 살게 되는데 그 남주를 좋아하고 그 남주도 그 여주를 좋아하는 둘의 연애스토리.)

웹툰 ‘연애혁명’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연애 이야기이다.)

다음 웹툰 ‘취향저격 그녀’

웹툰 ‘가타부타타’
(여주와 남주가 고등학교 때 사귀게 되는데 여주는 어떠한 트라우마로 남주와 헤어진 뒤 대학에서 좋아했던 남주를 다시 만나게 된다. 싫어하지 않지만 트라우마로 헤어지게 된 여주는 남주와 같은 대학에 붙어 행복해 하는데 두사람 마음이 같아 서로 사랑하고 싶지만 여주의 트라우마를 잘 알아 선뜻 사귀자 하지 못하는 남주와 남주를 많이 사랑하지만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는 여주가 다시 만나 답답하지만 갈수록 예쁜 사랑을 하는 내용을 가진 웹툰.)

웹툰 ‘유미의 세포들’
(유미라는 주인공의 다양한 세포들의 이야기와 유미의 주변인물과의 관계와 로맨스를 담은 웹툰인데 요즘 굉장히 재미있다.)

연애의 참견이라는 프로를 보면 막장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유튜브에 지나가다 보면 연애스토리나 그런 거 있는데 한 번 보면 재밌다.

내 친구 얘기
친구가 게임하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여아가 밝혀져서 차였다. 웃겼지만 친구가 불쌍했다.

내 이야기?

평범한 여자랑 사귀는데 그게 싫어서 예쁜 여자한테 가서 고백함.

< 오늘 수업을 마치며 >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이번 연애이야기는 새롭게 다가왔다.
감사합니다.